

인간과 하천
5
River & Culture



김성환 | 동부엔지니어링(주) 상무
(kskim@dbeng.co.kr)

우리 마실 하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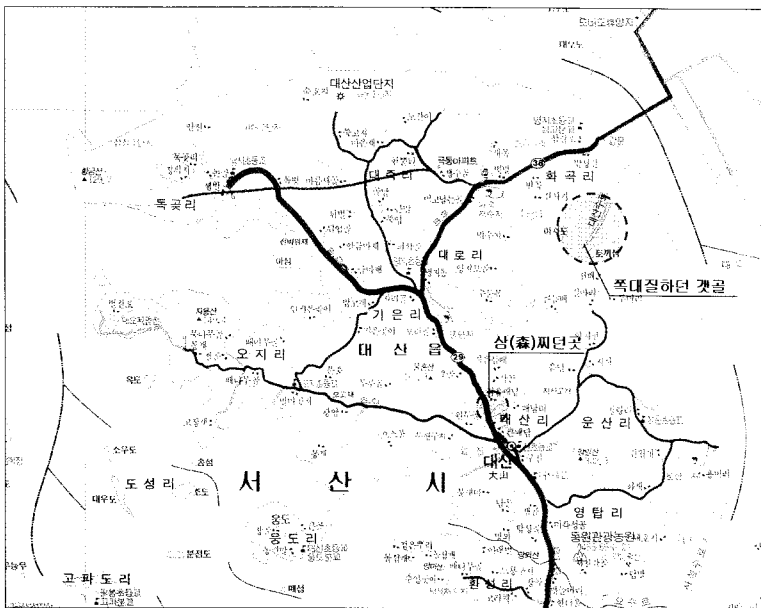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아온 나에게는 하천이란 말보다 “냇가”란 말로 많이 불렀고 제방이란 말보다 “냇둑”이란 말로 방조제란 말보다 “원뚝”이란 말로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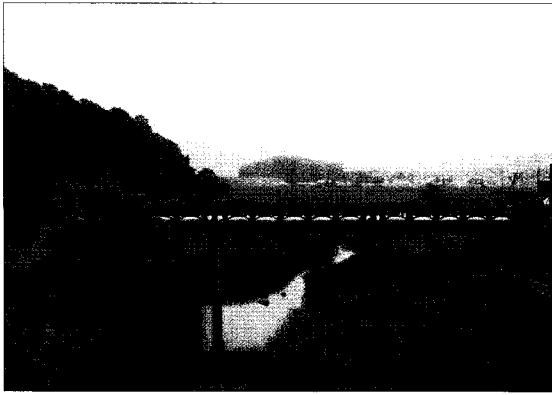
그렇다. 우리 마을은 큰 냇가가 없는 바닷가의 기수역 하천에 해당하는 작은 갯골이 많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어릴 적에는 마치 강처럼 매우 크게 보였던 것은 왜 그랬을까?

내 나이 30대일 때 성인이 된 나는 어릴 적에 건너다니던 동구막 하천에서 새로운 교량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을 고향 방문길에 본 적이 있었다.

준비된 시멘트에 현지하천에서 조달된 자갈, 모래를 들통에 지고 운반해 현장 타설하는 장면이었다.





“꽤 큰 다리를 설치하는구나!” 하고 동원된 인력 규모를 보면서 짐작했었고, 시골에서 그 공사는 꽤 큰 공사로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쫓을 것이며, 옆에 있는 주막이 꽤나 바빴을 것으로 또한 짐작이 갔다.

그러나 그 이후 명절 때 고향을 방문했을 때는 그 교량이 왜 그리도 작게 보이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교량도 10여년 전에 도로를 높게 성토하여 4차선으로 확장된 국도였는데 옛 모습의 왜소함에서 제법 그 규모가 달라졌고 세월의 흐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그렇게 엄하고 위압적이며 지당하게 느껴지던 어린 시절의 아버님의 훈계(訓戒)의 말씀이 지금 나를 만나시면 아들 며느리 눈치를 살피시며 조심스럽게 훈계하시는 아버님이 왜 그렇게도 안타깝고 왜소해 보이는지 알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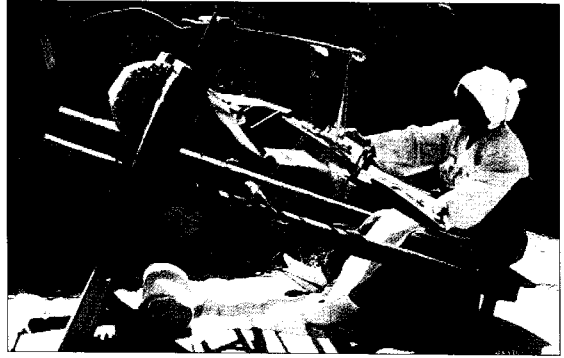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단 증거이겠지’ 하고 생각하니 갑자기 고향에 계신 아버님 생각이 간절하다.

초등학교 때 아마도 1965~1970년 때 이 하천에서 베적삼의 옷감을 만들기 위해 재배하던 삼(蔘)을 마을 공동으로 찌서 내를 막아 그 웅덩이에 썬 삼 다발을 식혀내는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시골에서는 꽤나 중요한 소득원임에 틀림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흙벽돌로 된 틀에 삼다발을 넣고 위에는 황토 흙으로 덮은 후 불을 지피며 습기를 유지하며 훈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 어머니는 맘대느리여서 그 삼으로 베적삼을 짜

면서 고달픈 시집살이를 하셨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나의 냇가와 저수지, 방죽, 웅담샘, 두밥샘(공동우물)에 대한 추억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시절의 추억이 대부분이다.

나의 어릴 적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한량 끼로 인하여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무척이나 힘든 생을 살아오신 분이다.

그래서 가족형편 또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쌀밥이라곤 명절 때 한번 맛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여덟 살 때인가? 아버지는 나에게 작은 지게 하나를 정성껏 만들어주셨다.

이것은 지게질을 익히라는, 당시로서는 장남인 나에게 가정을 배우게 하는 일종의 당연한 과정의 시작이었다.

어쨌든 그 지게를 지고 추석명절을 대비하기 위하여 간사지(바다를 막아 농사짓는 농토로서 염분이 아직 남아있는 논)에서 조기 성육시킨 아직은 완전히 익지 않은 벼(일명 찌갱이 벼) 두 단을 베어 주시면서 그것을 내 지게에 지어주셨다.

벼대가 아직 물이 안 빠지고 살아있는 터라 매우 무거운 짐이었고 처음 지게질을 하는 바람에 몇 걸음 못가서 비틀거리다가 냇둑에서 논으로 뒹굴고 말았다.



웃은 단신창이가 되었고, 벼나 락 또한 뻗어 젖어 말려 정미하기까지 시일을 요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넘어진 나에게 훈계하시지 않으시고 허만 끌끌 차며 다시 나에게 벼단을 지워지시

며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다시 그 벧단을 지고 집에까지 약 2km 를 간신히 지고 왔다.

땀이 많이 났고 어깨는 붉게 충혈 되어 있었다. 중간에 쉬면서 오고 싶어도, 쉬었다가 일어나지도 못하던 형편이라 단숨에 달려오느라고 더 지쳐있었다.

벼가 텅굴었던 냇둑이 참으로 가파르고 불규칙한 둑의 상단 폭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아마도 모두 힘든 인력으로 뺨을 찜아 만들어야 하는 둑이기에 보강하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냇둑은 기수(汽水) 하천구간으로 망둥어, 우렁이 등 다양한 수중 생물이 공존하는 지역이었고, 주변 논에서 우렁이를 잡았던 기억도 있다.

지금 그 냇둑을 볼 수 없지만 내가 성장해서 명절 때 그 냇둑을 일부러 걸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크던 냇둑이 그렇게 작게 보였던 것은 웬일일까?

나의 하천에 대한 추억 중 가장 큰 기억은 “소풀 베기”로 있었던 추억담이라 할 수 있다.

어릴 적 집안에서 사육하는 가축은 매우 큰 자산이었고 부의 상징이었다.

나는 중학교 시절에 집에서 토끼를 직접 100여 마리 정도 까지 사육한 적이 있었고 소(한우)는 2마리까지 사육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학교 방과 후에는 공부할 시간보다 소풀 베고 소 끌고 집에 와야 하는 것이 일상 업무였다.



봄날에는 냇둑의 작은 골(谷)에 소와 토끼를 동시에 풀어 놓으면 소와 토끼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소가 토끼를 여유 있게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냇둑 작은 골에서 봄바람에 놀라 동그란 작은 눈동자를 굴리면서 요리조리 뛰어다니는 토끼새끼의 모습은 얼마나 예쁜지……. 냇가의 여울에 옥돌을 감아 도는 물소리보다도 아름다웠다.

소는 보통 벼과식물(억새, 물 억새, 갈대, 흑삼릉, 수크령, 달뿌리풀, 나도겨풀, 락죽 등)과 토끼풀 등을 좋아한다.

특히 비개고 난 이후의 깨끗하고 신선한 풀은 더 좋아한다. 그래서 냇둑에 소를 많이 방목하는 것 같고 따라서 둑의 훼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어느 여름날 냇둑에서 주로 개구리를 잡으러 다니는 할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

주로 싸리나무가지로 매질을 가해 개구리를 잡는데 들기로는 그 할아버지의 병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개구리 사냥을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때 난 할아버지가 사망하시면 개구리의 혼들이 몹시 괴롭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하지만 나의 친구들과 개구리 뒷다리를 구워먹던 기억도 있었다.

너무나 배고팠던 시절이기에 식용개구리 큰 것을 포획하여 뒷다리를 뽑아 삭정(죽은 나뭇가지) 불에 구워 먹으면 정말 맛이 있었다.

처음에는 징그러워 망설였으나 익살스러운 선배의 설득으

로 한번 입맛들이니 그 소나무 사정아에서의 개구리 뒷다리
훈제는 별미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메뚜기를 잡아 식용으로 한다는 것은
또한 접해 보지 못해 이상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중학교 여름 방학 때 아버지는 나에게 절대로 저수지에 가
서 수영을 하지 않도록 다짐을 강요하셨다.

꽤나 귀한 자식으로 의사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
였다.

사실 나 또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지 않았
다. 그 당시만 해도 양반 자체가 수영하면 품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고프던 시절이라 다른 학교 선배들이 냇가에서
붕어, 미꾸라지 등을 잡아가는 것을 보면 탐이 나는 것은 당
연한 유혹이었다.

나는 부모님께 수영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저수지를
방문하여 수심이 깊은 곳은 피하여 늪의 골로부터 논으로 이
어지는 수로에서 물을 퍼 간신히 작은 붕어 5마리 정도 잡아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버지 모르게 붕어를 요리하여 고추장과 마늘
설탕의 소스로 버무려 붕어찜을 해주셨다.

그때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고 내 먹는 모습에 어머니의
흐뭇해하시던 표정이 눈앞에 지금도 선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잊지 못할 추억이 있었다.

우리 고향에서 어류 잡이의 가장 큰 행사는 족대질이였
다.

보름달이 뜨는 때는 어김없이 바닷가에 족대와 구럭(대나
무로 만든 등에 지는 통)을 메고 족대질을 가는데, 아버지와
나는 봄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다.

오후 내내 족대의 그물을 점검한 아버지는 나와 함께 저녁
을 드시고 밤 9시쯤 달빛이 만드는 두 사람의 그림자와 함께
갯골 초입으로 향했다.

밀물일 때에는 하천의 일정부분까지 갯물이 밀고 올라오
므로 그 곳에서부터 족대질을 시작할 참이었다.

나는 구럭을 메고 아버지는 족대를 메고 떠났는데 그때 나
의 옷차림은 다 낡은 한소대(웃옷의 일종)와 누나가 입었던
무릎팍(무릎)이 다 헤어진 고리똥(골덴) 내복과 검은 고무
신이었다.

갯골을 따라 내려가면서 족대질을 하던 우리는 가장 간조
시점에서 만조 시작 때까지 크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밀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는 갯골을 다시 따
라 오르면서 꽤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한번 족대질을 하면 물치(크기가 작은 송어), 꽃게, 백하지,
바닷가재 등 많은 바다 생물을 낚을 수 있었고, 그때 가장 많
은 것은 망둥이었다.

족대를 물에 밀어 한번 들어 올리면 물치는 그물 속에서 팔
딱팔딱 튀게 되는데 달빛에 비친 물치의 은빛은 족대질하는
사람에게 큰 희열을 느끼게 하고 제사 때나 시제(큰제사) 때
에 쓸 자반(말리거나 조려 만든 밀반찬)의 수확에 매우 흡족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체온이 떨어져가고 양 어깨에 짊
어진 짐은 더욱 무거워갔으며 등과 엉덩이는 물에 젖어 추위
에 시달리자 나는 아버지께 빨리 퇴각하자는 제안을 했음에
도 아버지는 족대질의 즐거움에 -아니 어쩌면 처음 나온 아
들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시간가는 줄 모르셨다.

꽤 시간이 흐르자 동쪽 바닷가에 여명이 밝아오고 나는 굴
껍질에 배인 쓰러린 발바닥의 느낌도 잊은 채 초죽음(?)이 되
어 집에 도착했다.

즐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군대

졸병 때 100km 야간 행군시 중간기착지에 도착하였을 때 나는 어릴 적 바로 그 족대질을 생각하며 힘든 야간 100km 행군을 견디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뜰 안에 원형 명석(벚झ으로 조밀하게 엮어 만든 방석의 일종)위에 쏟아 부은 생선 등 수확물을 바라보는 나는 정말 마음이 부자가 된 느낌이었고 일의 수확하는 이 보람이 바로 아버지의 삶의 힘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해 보았다.

한참을 자고난 나는 어머니의 재촉에 의해 눈을 떴다.

벌써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동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머니는 시금치국에 각종 해물을 넣어 구수한 해물 국을 끓여서 지쳐있는 아들의 허기를 채워주시기 위해 깨우셨던 것이다.

그때의 그 국물 맛은 정말 해산의 맛 바로 그것이었다.

내가 하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뱀의 출현이다.

대부분 물뱀이었지만 냇둑에 파리를 틀고 있다가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면 바로 그때 갑자기 움직이는 뱀을 발견하면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바짝 섰던 어릴 때가 생각한다.

가장 소름 돋던 때는 영검결에 그 뱀을 밟았을 때인데 온몸이 오싹하던 느낌을 지금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시골에서도 그리 흔하던 개구리, 미꾸라지, 붕어, 거머리, 뱀의 흔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논둑을 뚫어 (파이핑의 원인?) 논의 물을 말리던 농사의 방해꾼인 우레(무자치의 일종)도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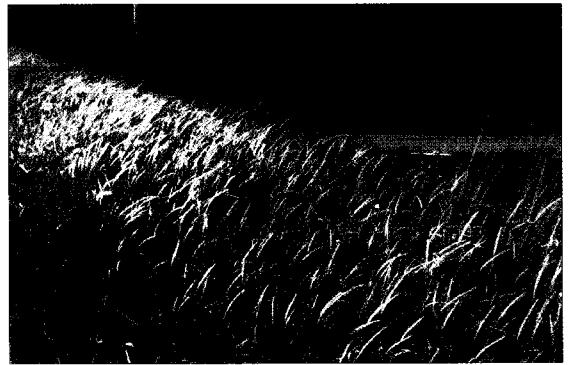
농약 사용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모든 동식물이 사람과 공존해서 살던 어린 시절의 들판이야말로 「야생동물원」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한번 물리면 약이 없다고 하여 농부의 눈에 보이기만 하면 바로 삽으로 두 동강 내어 버리던 옛 추억이 있고 그때 우레의 입 속은 빨간색이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렇게 무섭던 우레가 약용으로 쓰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시골의 냇둑은 농사짓는 사람들의 내왕과 경작용 우마차의 이동으로 매우 견고한 상태이며 오래된 야생잔디가 호우시에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다.

또한 냇둑사면에 자생하는 락풀은 그 뿌리 깊이가 최소한 30cm는 되고 그 상태에서 뿌리번식을 위해 견고한 식생사면을 형성토록 하며 홍수 시에 줄기는 바다에 누워 조도(m)를 작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른 봄철 모내기철에는 락풀의 새순(일명뻬비)을 뽑아먹던 기억이 난다.



나는 사실 어릴 때부터 지게질에 질려서 농사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바 있다.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 다룰 수 있지만 농촌의 현실은 도시민들에게 결코 동경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하천을 직업삼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옛날 어릴 적 하천의 추억은 하천에 관한 순리적 지식을 매우 유익하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지금쯤 한참 모내기철이지만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 뵙지 못하고 있다.

모내기를 하면 항상 냇둑에서 새참 또는 점심식사를 하게 되는데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잣밥에 관심이 많다는 말과 같이 모내기하면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언제쯤 새참(국수와 막걸리)이 안 오나, 언제쯤 점심식사가 안 오나 하고 모두들 기다리던 옛일이 생각한다.

그때 막걸리 한 사발과 꽃게 다리 하나면 배고픔은 견디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리는데 최선책이었던 시절의 여유롭고 훈훈하던 추억들이 가끔씩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추억의 단상이 되곤 한다. ●